3-5세 아동의 시제어미 이해와 산출의 정확성

The Comprehension and Production of Tense Markings in 3- to 5-year Old Korean Children

원 혜 미* · 황 민 아*
Hey-mi Won · Mina Hwang

ABSTRACT

In the present study, we investigated development of verb inflections or endings in 3- to 5-year old Korean-speaking children using 28 action verbs for both comprehension and production tasks. For each verb, a 10-second long motion picture and a sheet of paper with three random-ordered color pictures representing "before, in the middle of, at the end of" the action were generated. A past tense inflection '-et ta,' two present progressive verb endings '-enta' & '-ko itta,' a future tense ending '-elyeko hanta'were tested. In the comprehension task, children were asked to point to a picture correctly representing the tense of a presented verb. In the production task, children were asked to produce a verb with correctly marking the tense of a presented picture. The order of the two tasks were counterbalanced across the children, and the motion pictures were only presented in the first task. Across the ages, the performance accuracies on both comprehension and production tasks were the highest for the past tense marking followed by two present progressive and future tense markings. For each verb endings, the changes of accuracies across ages were analyzed in both tasks. The types of errors for production tasks were also reported.

Keywords: Comprehension task, Production task, Performance accuracy

1. 서 론

아동의 문법형태소 습득과정은 특히 언어발달 초기에 구문론적 형식 발달의 주요 부분을 차지한다. 특히 한국어와 같이 문법형태소가 다양하고 복잡한 체제를 가지고 있는 언어에서, 문법형태소의 정확한 이해와 산출은 언어를 습득하는 아동들의 성공적 의사소통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언어장애 아동에 관한 많은 연구들에서 이들이 특히 문법형태소의 사용에서 어려움을 보인다는 결과들이 제시되어 왔고(김수영, 2002; 이정미, 2002; 박정현, 2002; 김정아, 2002; 황성혜, 2002; 김영진, 2003; 김은영, 2003; 전희옥, 2005; Bedore & Leonard, 1998; Gopnick & Crago, 1991; Loeb & Leonard, 1991; Rice & Oetting, 1993), 언어장애 아동들에게서 취약한 문법형태소의 특성을 파악하

* 단국대학교 특수교육과

기 위해서도 정상아동들이 어떠한 문법형태소 습득과정을 거치는지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 아동들의 문법형태소 습득에 대한 연구들은 조사(배소영, 1997; 이은경, 1999; 이순형, 1999; 권도하 외, 2000; 이나영, 2004)와 연결어미(서희선,1999; 김귀숙, 2002)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왔다. 반면, 시제 어미의 발달에 관한 연구는 다양한 문법형태소 중의 일부로 다루어 졌다(조명한 1982; 이정민, 1997; 황미하 2003; 배소영 1995; 이영자 외, 1997; 최은희, 2000; 장유경, 2004). 한국어에서 시제 어미는 초기에 발달하는 문법형태소에 속한다. 이는 우리의 생활이 시간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자신이 속한 공간과 시간 속에서 많은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 이를 언어적으로 전달하고자 하기 때문이다(이석규, 1983). 이러한 의사소통의 요구로 아동은 전보문의 시기에서 기본문법기로 넘어가는 이른 시기부터 과거 및 미래시제 종결어미를 사용하면서 시간개념을 언어적으로 전달하기 시작한다(조명한, 1982).

한국어에서 시제는 시제 어미, 보조용언, 시제 부사 등으로 표현된다. 시제어미는 사용되는 위치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는데, 문장 종결형에는 '-었, -았었-, ㄴ/는다, -더, -겠-' 등의 선어말 어미가, 관형사형에는 '-(으)ㄴ, -는, -(으)ㄹ, 던' 등의 어말어미가 쓰인다(남기심, 2001). 과거시제를 나타내는 어미는 '-었-'이 있는데 과거의 시제를 나타내는 어미, 완료상, 또는 완결의 의미로 해석된다. 현재 시제는 대체로 동사원형으로 표현되고, 현재 진행을 나타내는 형태소는 선어말 어미 '-ㄴ/는다'가 있다. 미래시제를 나타내는 형태소는 '-겠-' '-을/ㄹ' 등이 있다. '-겠-' '-(으)ㄹ'은 미래라는 시간범주를 원형적인 중심의미로 추측이나 의지 그리고 가능성의 의미가 유사성의 의미로 연결되는 의미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김기혁, 1997). 시제 어미 이외에도 '-고 있다', '-는 중이다' '-려고 한다' 등의 보조용언 또한 시제를 표지한다.

우리나라 아동의 문법형태소 습득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시제어미 습득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아동들의 자발적 발화에서 산출된 시제어미의 출현 시기나 빈도(조명한, 1982; 이정민, 1997; 황미하, 2003; 배소영, 1995; 이영자 외, 1997), 부모 보고에 근거한 아동의 시제 어미 사용 여부(최은희, 2000; 장유경, 2004)에 초점을 두었다. 조명한(1982)은 5 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10 개월부터 3 세 2 개월까지 자발어를 수집하여 분석한 종단 연구를 통해 기능어들의 출현순위를 설정하였다. 아동들은 초기에는 현재형 시제어미만 쓰다가 2 세 - 2 세 6 개월 사이에 과거형, 미래형을 산출하고 진행형은 늦게 출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행형 '-ㄴ/는다'가 늦게 출현하는 이유로, 이들이 진행형 시제 이외에도 의문 종결어미, 연결어미, 주격 혹은 대조조사 등 여러 곳에서 쓰이는 의미복잡성에서 기인한다고 하였다.

횡단 연구로는 배소영(1995)이 5 개월에서 73 개월까지의 아동 320 명의 자발화를 수집하여 분석한 연구에서, 아동들은 2 세에 이미 과거시제 선어말어미 '-었-'의 산출이 자유스러워지고 3 세 이후가 되면 '-ㄹ래' '-ㄹ꺼야' 등의 미래 시제가 사용되며, '-고 있다'와 같은 현재진행 표현들도 나타난다고 하였다. 4 세가 되면 관형형 어미에 시제를 포함한 표현들도 발달된 모습을 보인다고 하였다. 이영자, 이종숙, 이종욱(1997)은 1 세에서 3 세까지 175 명의 유아를 대상으로 어머니와 아동의 상호작용에서의 자발화를 분석하였다. 동사의 시제 및 진행시상 발달을 알아보기 위하여 현재형, 과거형, 미래형, 진행형으로 구분하여 사용빈도를 분석하였는데 1, 2, 3 세 모두 사용빈도가 높은 순으로 현재형, 과거형, 미래형, 현재진행형의 순서로 나타났다. 동사의 시제 중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현재형이며, 과거형과 미래형은 3 세가 1 세보다 사용빈도가 유의미하게 높았다고 하였다.

최은희(2000)는 부모 보고에 따른 어휘 체크리스트를 통해 횡단적 방법, 종단적 방법을 모두 사용하여 13 개월에서 30 개월의 한국 아동이 사용하는 어휘빈도를 조사하였다. 어휘범주 중 어미에서 과거시제 '-었-'과 미래 시제 '-르꺼야', '-르게' 는 25-27 개월에 50% 이상의 아동이 산출하였고 현재진행형 '-ㄴ/는다', 미래시제 '-르래', '-겠-', 는 28-30 개월에 50% 이상의 아동이 산출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선행연구들에서는 시제어미들이 처음 산출된 시기나, 자발화에서 산출된 빈도만을 주로 보고하였다. 자발화 분석이나, 부모 보고에 근거한 연구에서는 아동이 특정 문법형태소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할 상황에서 정확하게 사용하는 정도, 즉, 문법형태소 사용의 성공률을 밝히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아동들이 말할 때, 자신이 잘 모르는 문법형태소를 포함시켜야 할 단어나 문장을 선택적으로 생략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선행연구들에서는 시제 어미와 보조동사의 산출만을 조사하였으며, 시제의 이해에 관한 연구는 보고된 바가 없다. 본 연구에서는 시제의 정확한 산출과 이해를 유도하는 실험 조건에서 수행정확도의 연령에 따른 변화를 3 세 - 5 세 아동을 대상으로 조사하고자 하였다. 실험 상황에서는 동영상으로 동작의 진행 상황을 제시하여 아동이 시간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조사된 어미는 문장 종결형 시제어미로 과거를 나타내는, '-었-', 현재진행을 나타내는 시제어미 '-ㄴ/는다' 뿐 아니라, 현재 진행을 표현하는데 빈번히 쓰이는 보조동사 '-고 있다'와 미래를 표현하는데 쓰이는 '-려고 한다'를 포함하였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어린이집 교사나 부모가 인지적 결함이 없다고 보고한 서울 거주 만 3, 4, 5 세 아동들로서 각 연령마다 20 명씩 총 60 명을 표집하였다. 각 연령별, 성별 대상아동들의 분포는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 연구대상 아동의 분류

성별	연령그룹					
	3 세		4 세		5 세	
	3;0-3;5	3;6-3;11	4;0-4;5	4;6-4;11	5;0-5;5	5;6-5;11
	(3;3)*	(3;8)	(4;4)	(4;8)	(5;4)	(5;9)
남	4 명	5 명	4 명	6 명	5 명	4 명
여	5 명	6 명	5 명	5 명	6 명	5 명

* 괄호 안은 평균 생활 연령임.

2.2 검사도구

시제의 산출과 이해 검사에 사용될 동사는 MCDI-K 유아용 검사(배소영, 2002)를 참고하여 현재진행, 과거, 미래의 시제 차이를 그림으로 표현가능 한 것으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2 개의 연습동

사와 28 개의 실험동사를 표현하는 동영상을 각 동사 당 10 초 간 촬영하여 제작하였다. 각 동영상에서 동작의 시작 전, 동작 진행 중, 동작 완료 후의 세 장면을 순간정지한 화면을 가지고 세 시점의 시제를 반영하는 그림을 제작하였다. 각 동사에 대한 3 시점의 그림을 A4 용지에 가로로 배열하여 컬러로 출력하였는데 3 장면의 배열 순서는 무선이었다. 제작된 30 개의 동영상과 30 장의 그림이 동사와 시제 변화를 적절히 표현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생활연령이 3-5 세인 남아, 여아 각각 6 명씩 총 12 명을 대상으로 시제 이해와 산출의 예비검사를 실시하였고, 아동이 시제 차이를 분명히 파악하지 못하는 그림들을 시제가 명확히 표현되도록 수정하였다.

2.2.1 이해과제

선택된 28개의 실험동사를 4 집단으로 나누어, 각각에 "-ㅆ다, -고 있다, -ㄴ/는다, -려고 한다"로 동사의 시제를 활용하여 표현하도록 하였다. 과거, 현재진행 '-고 있다', 현재진행 '-ㄴ/는다', 미래 '-려고 한다'를 각각 7 번씩 검사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남기심(2001), 이익섭(1998) 등은 '-고 있다'는 보조용언으로서 엄밀히 말하면 시제 어미에 포함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아동이 현재진행 시제를 표현하는데 많이 사용되고 있고 '-ㄴ/는다' 중 선호하여 사용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습득 시기를 차이는 어떠한지를 비교하고자 목표 시제에 포함시켰다. 검사 문장은 목적어 없이 시제 어미만 활용한 동사를 들려주고 지시하는 시제를 찾도록 구성하였다. 28 개의 이해 과제는 같은 시제가 3 번 이상 연속되지 않는 조건으로 무선 배열하였다.

2.2.2 산출과제

28 개의 실험 동사에 대한 산출과제의 목표시제는 이해과제에서 제시된 목표시제와 다른 시제로 구성하였다. 즉, 이해과제에서 과거시제로 쓰인 동사는 산출과제에서는 현재진행 '-ㄴ/는다'로 이해에서 현재진행 '-고 있다'는 산출에서 미래 '-려고 한다'로 이해에서 현재진행 '-ㄴ/는다'는 산출에서 과거 '-었-'으로 이해에서 미래 '-려고 한다'는 현재진행 '-고 있다'로 활용되었다. 아동이 동사를 잘 활용하여 산출한 경우 검사자가 목적어를 말하여주지 않았고 동사의 산출을 어려워하는 경우에만 반응을 유도하기 위하여 검사자가 목적어를 말하여 주었다. 28 개의 산출과제 또한 같은 시제가 3 번 이상 연속되지 않는 조건으로 무선 배열하였다. 이해와 산출과제에 사용된 28 개의 실험동사의 시제활용을 <부록 1>에 제시하였다.

2.3 연구절차

각 연령의 아동을 2 집단으로 나누어 한 집단 아동들은 이해과제를 먼저 수행하였고 다른 집단 아동은 산출과제를 먼저 수행하였다. 이러한 counterbalancing을 통하여 두 과제에서 같은 동사와 그림자극이 사용되는 데에 따른 연습효과를 통제하였다. 이해과제를 먼저 실시한 아동들의 경우, 각 동사를 제시하기 전에 먼저 노트북을 이용하여 동작이 시작하여 진행되고 완료된 상황을 동영상으로 보여주었다. 동영상 제시 후 3 장면으로 구성된 그림을 아동에게 보여주고 검사자가 동사를 말하고 나서 동사의 시제와 일치하는 장면을 아동이 지적하도록 하였다. 본 시행 전에 2 회의 연습시행을 통해서 아동에게 세 개의 그림이 같은 동작을 보여주는 것이고 오직 동작의 시간적 변화에 주의를 두도록 훈련하였다. 이해과제에서 아동이 선택한 그림은 검사자가 즉시 검사지에 표시하였

다. 이해과제 후에 산출과제를 수행한 경우에는, 산출과제에서는 동영상을 다시 보여주지 않았고, 세 장면으로 구성된 그림을 아동에게 보여주면서 그 중 한 장면을 검사자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상황에서 아동이 동사를 산출하도록 유도하고 동사산출을 어려워하는 경우 목적어를 제시하였다. 산출과제에서 아동의 수행은 녹음기(아이리버 IFP-380T)로 녹음하면서 검사자가 즉시 아동의 발화를 검사지에 전사하였다. 이해과제에 앞서 산출과제를 먼저 수행한 아동에게는 산출과제에서만 각 동사에 대한 검사수행 전에 동영상을 보여주었고, 이해과제에서는 동영상을 보여주지 않았다.

2.4 자료처리 및 분석

아동이 목표로 한 시제를 이해하거나 표현한 경우 1 점을 주고 적절하지 못한 그림을 선택하거나 표현한 경우 또는 무반응일 경우 0 점을 주었다. 아동이 그림을 두 번 지적할 경우 두 번째 것을 반응으로 채점하였다. 산출 과제에서 현재진행을 표현해야할 시행은 총 14 회로 이에 대해 '-고 있다,' 혹은 '-ㄴ/는다'를 사용하면 정반응으로 간주하였다. 아동이 시제를 산출하면서 '띠은다, 먹은다, -f라구 한다' 등 처럼 활용상 오류를 보인 경우에도 정반응으로 인정하였다. 처리된 자료는 SPSS (Version 12.0)를 사용하여 시제어미유형(4) × 연령(3)의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고, 각 시제습득의 연령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각 시제별로 일원분산분석을 하고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시제어미의 이해

시제어미별 이해과제 수행의 평균 및 정반응율을 <표 2>에 제시하였고, 시제어미유형(4) × 연령(3)의 이원분산분석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2. 연령별 시제어미 이해의 정반응률

연령	3 세	4 세	5 세
	정반응율*	정반응율	정반응율
과거	59%	79%	86%
현재진행 '-고 있다'	58%	71%	69%
현재진행 '-ㄴ/는다'	34%	53%	54%
미래	36%	59%	67%

* 단위는 %임.

표 3. 이해과제에서 시제유형과 연령의 이원분산분석 결과

분산원	제곱합(SS)	자유도(df)	평균제곱(MS)	F	유의확률
연령간					
연령	113.925	2	56.962	19.884	.000
오차	163.287	57	2.865		
시제유형	134.312	3	44.771	25.489	.000
연령*시제유형	11.575	6	1.929	1.098	.365
오차	300.362	171	1.757		

시제 이해과제에서 연령의 주효과와($F(2,57)=19.884$ $p<.001$) 시제유형의 주효과가($F(3,171)=25.489$ $p<.001$) 유의미하였다. 시제유형과 연령사이의 상호작용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F(6,171)=1.098$ $p>.05$). 3, 4, 5 세 모두 과거 시제에 대한 정반응률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현재진행 '-고 있다,' 미래, 현재진행 '-ㄴ/는다'의 순서로 정반응을 보였다. 각 시제별로 이해 정확도의 연령에 따른 차이를 보기위한 일원분산분석 결과는 <표 4>에, 사후검증 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표 4. 이해과제에서 각 시제어미에 대한 연령별 정반응의 일원분산분석 결과

	분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과거	집단-간	38.800	2	19.400	14.096	.000
	집단-내	78.450	57	1.376		
	전체	117.250	59			
현재진행	집단-간	9.733	2	4.867	2.303	.109
'-고 있다'	집단-내	120.450	57	2.113		
	전체	130.183	59			
현재진행	집단-간	25.233	2	12.617	7.068	.002
'-ㄴ/는다'	집단-내	101.750	57	1.785		
	전체	126.983	59			
미래	집단-간	51.733	2	25.867	9.045	.000
	집단-내	163.000	57	2.860		
	전체	214.733	59			

표 5. Tukey 사후검정에서 나타난 이해과제 수행의 연령 간 차이의 유의확률

	3세-4세	4세-5세	3세-5세
과거	.001*	.375	.001*
현재진행 '-고 있다'	.132	.974	.199
현재진행'-ㄴ/는다'	.006*	.992	.005*
미래	.011*	.505	.000*

과거 시제 '-었-' 이해의 정반응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세에 정반응률이 59.2%였지만 4 세에는 79.2%로 급격한 상승을 보였고 5 세에는 82.1%로 안정된 수준을 보였다. 현재진행 시제 '-고 있다'의 정반응률은 3 세에 58%에서 4 세에는 70.7%로 완만히 증가하였고 5 세에는 69.3%로 4세와 비슷하였다. '-고 있다'의 정반응률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른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현재진행 시제 '-ㄴ/는다'의 정반응률은 3 세 34.2%에서 4 세 53.6%로 급격히 상승하였고 5 세에는 4 세와 비슷하였다. 미래 시제 '-려고 한다'의 정반응률은 3 세 35.7%에서 4 세 58.6%로 급격히 증가하였고, 5 세에도 67.1%로 지속적인 증가를 보였다.

3.2 시제어미의 산출

시제어미별 산출과제 수행의 평균 정반응율을 <표 6>에 제시하였고, 시제어미유형(4) × 연령(3)의 이원분산분석 결과는 <표 7>에 제시하였다. 현재진행의 경우 14 번의 기회 중에 '-고 있다' 또는 '-ㄴ/는다'가 나올 수 있으므로 합하여 정반응율을 살펴보았다.

표 6. 연령별 시제어미 산출의 정반응률

시제어미	3 세	4 세	5 세
	정반응율		
과거	71%	78%	82%
현재진행	35%	53%	71%
'-고 있다'	13%	20%	40%
'-ㄴ/는다'	23%	33%	31%
미래	4%	33%	61%

표 7. 산출과제에서 시제유형과 연령의 이원분산분석 결과

분산원	제곱합(SS)	자유도(df)	평균제곱(MS)	F	유의확률
연령간					
연령	237.675	2	118.837	20.649	.000
오차	328.038	57	5.755		
시제유형	304.912	3	101.637	9.632	.000
연령*시제유형	106.525	6	17.754	1.683	.128
오차	1804.313	171	10.552		

시제 산출과제에서 연령의 주효과($F(2,57)=20.649$ $p<.001$)와 시제유형의 주효과가 ($F(3,171)=9.632$ $p<.001$) 유의미하였다. 시제유형과 연령 사이의 상호작용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F(6,171)=1.683$ $p>.05$). 3, 4, 5 세 모두에서 아동들이 가장 정확히 산출한 시제는 과거였고 다음이 현재진행, 미래의 순으로 나타났다.

각 시제별로 연령에 따른 산출정확도의 차이를 보기위한 일원분산분석 결과는 <표 8>에, 사후

검증 결과는 <표 9>에 제시하였다. 과거형 시제 '-었'은 3 세부터 이미 70.7%의 정확도로 산출하고 있었고 4 세엔 79.9%, 5 세엔 82.1%로 완만한 증가를 보여 연령에 따른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현재 진행 시제의 산출 정확도는 3 세에 35%, 4 세에 52.85%, 5 세에는 70.71%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뚜렷한 증가를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보조용언 '-고 있다'의 연령 간 증가를 반영하는 것이었다. 현재진행 '-고 있다'의 산출은 3 세에 12.5%, 4 세에 19.28%에 불과하다 5 세에 39.64%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반면 현재진행 '-ㄴ/는다'의 산출은 3 세 22.5%에서 4 세 33.21%로 완만히 증가하나, 5 세에는 31.07%에 머물렀다. 미래시제 '-려고 한다'의 산출 정확도는 연령 증가에 따라 가장 급격한 성장을 보였는데, 3 세에는 4%로 매우 낮았으나, 4 세에는 32.9%, 5 세에 60.7%로 상승하였다. Tukey 사후검증에서도, 3 세와 4 세(p=.004) 사이 뿐 아니라 4 세와 5 세(p=.000)사이에도 정반응율의 유의미한 증가가 확인되었다.

표 8. 산출과제에서 각 시제어미에 대한 연령별 정반응의 일원분산분석 결과

	분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과거	집단-간	6.533	2	3.267	1.278	.286
	집단-내	145.650	57	2.555		
	합계	152.183	59			
현재진행 합	집단-간	250.033	2	125.017	7.661	.001
	집단-내	930.150	57	16.318		
	합계	1180.183	59			
'-고 있다'	집단-간	156.433	2	78.217	6.067	.004
	집단-내	734.900	57	12.893		
	합계	891.333	59			
'-ㄴ/는다'	집단-간	25.200	2	12.600	.687	.507
	집단-내	1045.650	57	18.345		
	합계	1070.850	59			
미래	집단-간	156.033	2	78.017	21.571	.000
	집단-내	206.150	57	3.617		
	합계	362.183	59			

표 9. Tukey 사후검정에서 나타난 산출과제 수행의 연령 간 차이의 유의확률

	3 세-4 세	4 세-5 세	3 세-5 세
과거	.587	.824	.261
현재진행 합	.143	.122	.001*
'-고 있다'	.682	.039*	.004*
'-ㄴ/는다'	.513	.122	.651
미래	.004*	.006*	.000*

3.3 시제 어미 산출의 오류 유형

시제별로 연령간에 시제오류의 형태가 어떠한 차이가 나는지 알아보고자 시제의 산출 오류율을 살펴보았다. 산출과제에서 시제 산출의 오류 유형은 <표 10>에 제시하였다.

과거시제를 산출하여야하는 경우의 오류에 있어서, 3, 4 세 아동들은 동사 원형을 산출하는 오류를 가장 많이 보였으나 5 세 아동들에게서는 동사 원형보다 현재진행 '-고 있다'나, '-ㄴ/는다'로 산출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현재진행시제를 산출해야 하는 경우에, 3, 4 세에는 과거 '-었'이나 동사원형으로 대치하는 비율이 높았으나 5 세 아동들에게서는 동사원형으로 대치가 현격히 줄어들고 과거시제 어미와 더불어 미래시제 어미로 대치하는 경향이 드러났다. 미래시제를 산출해야 하는 경우에 오류의 유형은 세 연령별로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여주었다. 3 세 아동들은 미래시제를 과거시제로 대치하는 비율이 34%로 가장 높았으나 원형이나 현재진행시제 '-고 있다'나 '-ㄴ/는다'로 대치하는 경향도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였다. 반면, 4 세 아동들은 미래시제를 과거시제로 대치하는 비율이 6%로 현격히 감소하였다. 대신 현재진행시제 '-ㄴ/는다'로 대치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현재 진행 '-고 있다'와 동사원형의 순서로 대치하였다. 5 세 아동들은 미래시제를 과거시제 어미나 원형으로는 거의 대치하지 않았고 현재진행시제 '-고 있다'나 '-ㄴ/는다'로 대치하는 경향을 보였다.

표 10. 시제 산출의 오류율

	과거			현재진행			미래		
	3 세	4 세	5 세	3 세	4 세	5 세	3 세	4 세	5 세
원형	18%	10%	2%	27%	13%	2%	24%	10%	1%
과거	·	·	·	15%	11%	11%	34%	6%	2%
현재진행 '-고 있다'	3%	4%	6%	·	·	·	20%	16%	15%
현재진행 '-ㄴ/는다'	7%	8%	6%	·	·	·	18%	23%	14%
미래	0%	1%	2%	3%	9%	12%	·	·	·
기타	1%	1%	0%	3%	3%	1%	9%	10%	4%

Ⅳ. 논 의

본 연구에서는 3-5 세 아동들이 정확한 시제의 이해와 산출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시제의 이해와 산출 정확도의 발달적 변화를 살펴보았다. 조사된 4개의 시제어미 혹은 시제 보조동사 중, 과거시제어미 '-었'에 대한 정확도가 이해과제와 산출과제 모두에서 세 연령에 거쳐 가장 높았다. 이는 과거시제어미가 가장 먼저 출현하는 시제어미일 뿐 아니라(배소영, 1995; 조명한, 1982; 이연섭 외, 1980; 이영자 외, 1997) 아동이 가장 정확하게 이해하고 산출하는 어미임을 보여준다. 5 세에 이르면 과거시제 이해와 산출의 정확도는 각각 86%와 82%에 이르렀다. 특히, 산출과제에서는 3 세 아

동들도 71%의 정반응률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과거시제에 대한 이해와 산출정확도 간의 차이가 4, 5 세 아동들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는 것과 달리 3 세 아동들은 이해과제에서의 정확도가 59%에 그친 것과도 대조된다. 그러나, 3 세 아동들이 보인 과거시제 산출의 높은 정반응율은 과거, 현재진행, 미래의 세 가지 시제 차이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한 아동들이 제시된 그림의 시제에 관계없이 계속 과거시제 어미로만 답하는 경향도 반영한다. 이러한 경향은 산출오류 분석에서 3 세 아동들이 현재진행이나 미래시제를 과거시제 어미로 가장 많이 대치하는 현상에도 드러나 있다. 모든 시제를 과거시제 어미로 산출하는 경향은 4, 5 세 아동들에게서는 현격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해과제에서 과거시제어미 다음으로 정확도가 높았던 것은 현재진행 보조동사 '-고 있다'로 3 세 아동도 이미 58%의 이해 정확도를 보였다. 그러나 연령 증가에 따른 정확도의 유의미한 상승은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현재 진행 '-ㄴ/는다'와 미래 '-려고 한다'에 대한 이해 정확도는 3 세에 각각 34%와 36%에 그쳤으나 5 세에는 각각 54%와 67%로 증가하였다.

산출과제에서도 미래시제 보다는 현재진행을 나타내는 '-ㄴ/는다'나 '-고 있다'의 산출 정확도가 세 연령에 거쳐서 더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시제의 출현에 있어서 현재진행시제보다 미래시제가 앞서 출현한다는 배소영(1995)과 조명한(1982)의 관찰과 일관되지 못하다. 선행연구에서는 정확도를 고려하지 않고 이들 어미들이 처음 산출된 출현 시기만을 보고한데 반하여, 본 연구에서 산출의 정확성을 측정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나타났을 수 있다. 특히, 다른 상황적 정보를 배제하고 오직 동작의 진행추이에 근거하여 시제를 산출해야 하는 본 연구의 실험 상황이 선행연구에서 관찰된 일상생활 내에서 자발화 상황과 다른 것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의 산출과제에서 일상생활과 달리 상황적 단서가 제한된 상태에서 그림을 보고 미래에 일어날 일을 추측하는 것이 진행되는 순간의 동작을 기술하는 것보다 아동에게 인지적으로 더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을 수 있다. 이러한 인지적 부담은 4, 5 세보다 3 세 아동에게 더 큰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또한, 선행연구에서는 자발화를 관찰하므로 '-르래, -르꺼야'등을 미래시제의 출현시기로 보았으나, 본 연구에서 제시된 그림은 동작하기 전의 상황으로 자신의 의지를 표현하는 '-르래, -르꺼야'보다는 추측을 나타내는 '-려고 한다' 의 표현을 더 유도하는 것이었다. '-려고 한다'의 길이가 긴 것도 조음이 발달되지 않은 3 세 아동에게서 미래시제의 산출 정확도가 현재진행의 산출뿐 아니라 미래시제의 이해 정확도에 비해서도 현저히 낮은 현상을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진행을 나타내는 '-고 있다'와 '-ㄴ/는다'의 경우 이해면에서는 3 세부터 '-고 있다'를 '-ㄴ/는다'보다 더 잘 이해하나 산출에서 보면 4 세까지 '-ㄴ/는다'를 더 잘 산출하며 5 세에 들어서야 '-고 있다'의 산출이 증가하면서 '-ㄴ/는다'의 산출이 오히려 떨어지는 양상을 보이는데 이 또한 '-고 있다'가 산출 상 길이가 길어서 나중에 습득된다는 배소영의 해석과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ㄴ/는다'가 4 세 이후 크게 증가하지 않는 것을 보이는데 이는 현재진행은 동사원형이나 '-고 있다' 등의 보조동사로도 나타낼 수 있어서 현재진행에 대한 표현의 다양성 때문에 산출이 어느 정도 늘어난 이후에 증가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ㄴ/는-'은 어말어미 '다'에만 붙는 제약으로 인해 '-요'라고 습관적으로 답하는 아동의 경우에 '-ㄴ/는다'의 산출이 제한이 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산출과 이해의 정확도로 측정된 시제의 발달적 변화는 출현시기나 사용빈도에 초점을 둔 기존 연구과 일관된 부분도 있지만 선행연구에서 예측하지 못하는 측면들도 부각시켰다. 이러한 본 연구

의 결과는 시제어미 뿐 아니라 다른 문법형태소의 발달적 변화도 다양한 측정방법으로 조사되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또한, 시제 어미 습득에 대한 추후 연구에서는 시제 표현의 다른 측면들에 대한 고려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시제 어미가 아니라, '지금', '아까', '이따가'와 같은 시제 부사를 사용한 시제표지나 시제어미와 시제부사의 호응을 통한 다양한 시제 표현 방법에 대한 발달 양상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져야겠다.

참 고 문 헌

권도하, 정분선. 2000. "2-5세 아동의 조사발달연구." *언어치료연구*, 9, 139-164.

김기혁. 1997. "국어의 종결어미와 시간범주." *담화와 인지*. 담화 · 인지언어학회.

김수영. 2002. *언어발달지체 아동의 문법형태소 사용 특성*. 한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영진. 2003. *단순언어장애아동과 일반아동의 사동문과 피동문의 이해 및 표현 비교*.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은영. 2003. *학령전 단순언어장애 아동과 일반아동의 문법형태소 사용 비교*.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정아. 2002. *정상아동과 단순언어장애 아동의 연결어미 사용에 관한 연구*. 한림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남기심. 2001. *현대국어 통사론*. 서울: 태학사.

박정현. 2002. *학령전 단순언어장애아동과 정상아동의 조사 사용 비교*.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배소영. 1995. "우리나라 아동의 언어발달: 언어발달 진단의 일차적 자료." *언어치료 전문요원교육*. 한국언어병리학회.

배소영. 1997. "한국 아동의 문법형태소 습득에 관한 연구: 조사 "가, 이, 는, 도, 를". *말- 언어장애연구*, 2, 27-42.

서희선. 1999. *2-5세 정상아동의 연결어미 발달*. 이화여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나영. 2004. *기본문법기 정상아동의 연령과 발화 길이에 따른 조사의 산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석규. 1983. *현대국어의 시제연구: "-는", "-았", "-겠"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순형. 2000. "한국 아동이 초기에 획득한 문법형태소의 종류 및 획득시기." *아동학회지*. 한국아동학회, 4, 51-68.

이승복. 1981. *어린이 말에서 문법적 형태소의 발달*. 고려대학교 행동과학 연구소

이영자, 이종숙, 이정욱. 1997. "1,2,3세 유아의 의미 - 통사적 발달 연구." *유아교육연구*. 한국유아교육학회.

이익섭, 채완. 2000. *국어문법론강의*. 서울: 학연사.

이정미. 2001. *문장 따라말하기에서 나타난 단순언어장애 아동의 조사처리능력*. 단국대학교 대학원.

이정민. 1997. 언어습득과 화용규칙. *새국어생활*. 국립국어연구원.

장유경. 2004. "한국 영아의 초기 어휘발달: 18개월-36개월."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한국심리학회

조명한. 1982. *한국 아동의 언어획득 연구: 책략모형*.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최은희. 2000. *한국 아동의 어휘 발달 연구 : 13-30개월 아동을 대상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황미하. 2003. *2;6-3;5세 한국아동의 언어습득에 관한 종단적 연구*. 단국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Bedore, L. & Leonard, L. 1998. "Specific language impairment and grammatical morphology: A discriminant function analysis." *Journal of Speech, Language, and Hearing Research, 41*, 1185-1192.

Brown, R. 1973. *A first languag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Gopnick, M. & Crago, M. 1991. "Familial aggregation of a developmental language disorders. *Cognition, 39*, 1-50.

Lobe, D. 1991. Subject Case marking and Verb Morphology in Normally Development and Specifically Language-Impaired Children. *Journal of Speech, Language, and Hearing Research, 34*, 340-3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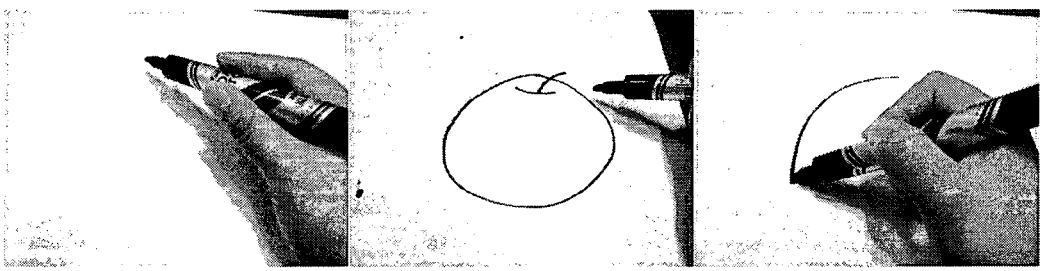
Rice, M. & Oetting, J. 1993. "Morphological deficits of children with SLI: Evaluation of number marking and agreement." *Journal of Speech, Language, and Hearing Research, 36*, 1249-1257.

접수일자: 2005. 11. 10
게재결정: 2005. 12. 10

▲ 원혜미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산 8번지 (우: 140-714)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특수교육과
Tel: +82-2-709-2630
E-mail: hemi7979@hanmail.net

▲ 황민아 (교신저자)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산 8번지 (우: 140-714)
단국대학교 특수교육과
Tel: +82-2-709-2390
E-mail: hwangm@dankook.ac.kr

<부록 1> 목표 시제 별 이해과제 동사 및 산출과제 동사

목표 시제	이해과제 동사	산출과제 동사
과거 시제 '-었-'	발랐다	(그림을) 그렸다
	넣었다	(불을) 껐다
	닦았다	(핀을) 꽂았다
	빗었다	(안경을) 썼다
	뽑았다	(뚜껑을) 열었다
	꺼냈다	(배를) 먹었다
	쏟았다	(지퍼를) 닫았다
현재진행 시제 '-고 있다'	까고 있다	(풍선을) 불고 있다
	입고 있다	(색연필로) 칠하고 있다
	마시고 있다	(계단을) 올라가고 있다
	신고 있다	(칼로) 깎고 있다
	붙이고 있다	(밴드를) 떼고 있다
	찢고 있다	(물을) 따르고 있다
	씻고 있다	(구슬을) 끼우고있다
현재 시제 '-ㄴ/는다'	그린다	(머리를) 빗는다
	끈다	(휴지를) 뽑는다
	쓴다	(우유를) 쏟는다
	꽂는다	(걸레로) 닦는다
	연다	(메니큐어를) 바른다
	닫는다	(책을) 넣는다
	먹는다	(돈을) 꺼낸다
미래 시제 '-려고 한다'	칠하려고 한다	(우유를) 마시려고 한다
	올라가려고 한다	(스티커를) 붙이려고 한다
	깎으려고 한다	(양말을) 신으려고 한다
	따르려고 한다	(종이를) 찢으려고 한다
	떼려고 한다	(얼굴을) 씻으려고 한다
	끼우려고 한다	(사탕을) 깔려고 한다
	불려고 한다	(옷을) 입으려고 한다

<부록 2> 그림 예